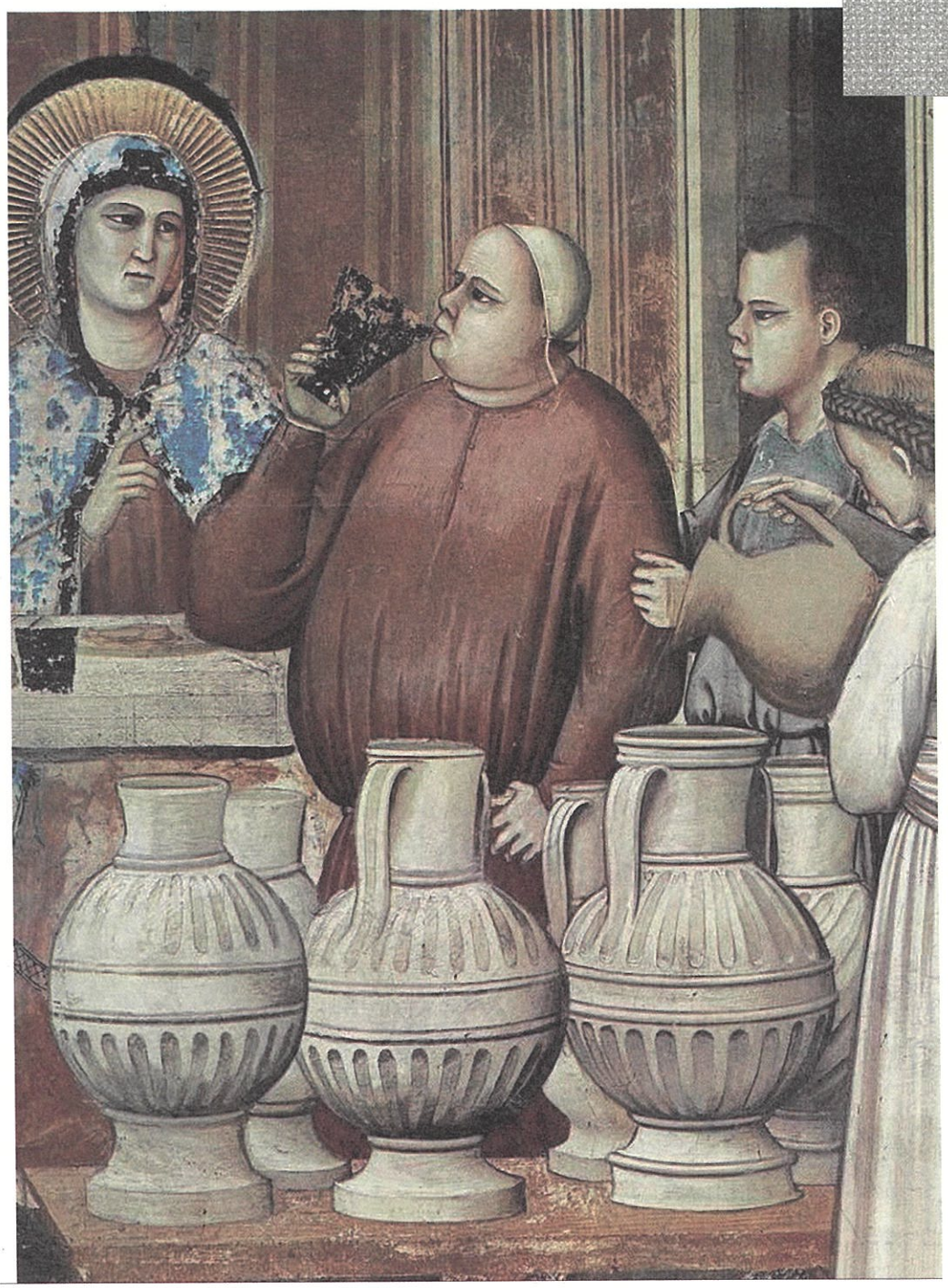
서울주보

제2541호
2025년 1월 19일(다해)

연중 제2주일



카나의 혼인 잔치(부분)
조토 디 본도네
(Giotto di Bondone, 1267-1337)
1304-1306, 프레스코, 200x185cm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파도바

입 당 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62,1-5

화 답 송 | 시편 96(95),1-2ㄱ.2ㄴ-3.7-8ㄱ.9와 10ㄱㄷ(◎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려라, 뭇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 1코린 12,4-11

복음환호송 |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 음 | 요한 2,1-11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윤웅렬 하상바오로 신부 | 등촌1동성당 부주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명칭은 바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이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터전을 잡고 산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래아 호수로부터 왼쪽으로 40여 km 떨어진 곳에 있던 나자렛이라는 고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 또한 흔했었기에, '나자렛'이라는 지명을 붙임으로써 예수님의 고유함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지명인 카나는 그 나자렛에서 걸어서 두 시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는 가까운 고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카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이 나자렛 성모자(聖母子)의 지인(知人)이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혼인 잔치의 흥을 북돋워 줄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침 잔칫상의 상황까지도 살뜰히 살펴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를 놓치지 않고 당신 아드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신약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에는 동사의 인칭에 따른 형태 변화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칭 단수와 복수, 2인칭 단수와 복수 그리고 3인칭 단수와 복수. 성경 원어를 보면, 성모님은 여기서 3인칭 복수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오이논 우크 에쿠신 – 포도주를 (그들이) 아니 가졌구나."(필자 번역) 성모님이 바라보신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기쁨으로 만끽해야 할 혼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포도주의 부족함으로 겪을 황망함을 미리 바라보시고, 참 좋은 '지인'이셨던 성모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배려를 아드님께 건네신 이 마음의 청원으로 드러내십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인을 향한 성모자의 이 따뜻한 마음은 혼인 잔치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좋은 포도주로 이 잔치를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지인의 혼인 잔치'라는 사실에 새삼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가까이 알고 사귀는 이들을 향한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성모자께서 보여주십니다.

과방장

성화 해설

과방장은 그저 일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지배인 혹은 행사 책임자입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기적의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이 혼인 잔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감탄합니다. 조토는 여섯 개의 볼록한 독과 그것을 닮은 과방장의 몸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그가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을 '여인 마리아'는 지긋이, 하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곧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같은 일상이 때로 즐겁고 감탄스러운 술잔으로 채워지길 성모님과 함께 청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백현실 라우렌시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칠레 선교사

10여 년 전, 안토파가스타에서 처음 그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네 살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두 눈에, 똘똘함이 가득한 귀여운 꼬마였습니다. 다니엘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바오로딸 서원에 찾아와 수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도 보며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손님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와 아빠 때문에 할머니의 손에 자란 다니엘은 말하는 폼이나 생각하는 것이 또래들과는 달리 의젓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그가 어느 날, "수녀님, 저 복사됐어요."라며 찾아왔습니다. 빛나는 눈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매일 미사에 오던 다니엘에게 특별히 복사단 입단을 허락하셨고, 다니엘은 신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환경미화 트럭 운전사가 되고 싶다더니, 다른 날은 소방관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복사 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지나자 드디어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해 성탄절이었을 것입니다. 무더위로 성탄 전야 미사는 본당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넘어가는 햇살이 따가웠는데, 사람들의 행복한 웅성거림, 박수 소리와 함께 사제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님의 두 손엔 한 갓난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장백의에 작은 허리를 띠로 질끈 묶은 다니엘도 두 손을 모은 채 신부님에 앞서 진지하면서도 상기된 얼굴로 제단을 향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아기 예수님을 준비된 구유에 눕힌 뒤 다니엘에게 아기 예수님을 돌보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미사 내내 다니엘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성탄 전야 미사는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깔끔한 장식과 아름다운 성가, 장엄한 침묵 속에 잘 준비된 수녀원의 전례에 익숙해 어수선한 분위기와 신자들의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낯설어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였던 저에게 "자, 보아라. 하느님은 사람이 사는 곳, 있는 그대로의 너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들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 역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누구라도 멈춰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미사, 저는 그 미사 안에서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의 한 아기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희에 찬 반짝이는 눈에서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노래한 작은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성탄을 선물해 주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고등학생으로 복사 단장이 되었고, 할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꿈이 아직도 사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자란 그 아이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신앙인으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세상 모든 청소년들이 예수님 사랑의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T) 소장

작년 이맘때 여자 친구를 선배에게 빼앗겨 공황장애가 오고 자해를 하던 친구가 제 권고로 다시금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그 뒤 병원도 안 다니고, 약도 다 끊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 적응을 못 해 자퇴했던 친구가 지금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자기 것만 챙기기에 바빴던 친구가 이제는 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법을 배웠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급식 봉사와 돌봄 봉사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도 없이 살았던 이 친구가 이제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 수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 주보에 소개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근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 친구와 '하루에 3가지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면서 너무 좋다며 친구 6명과도 단톡방을 만들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이 친구의 '감사 챌린지' 내용입니다.

1. 오늘도 지역아동센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2일 연속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섬기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조금씩 인내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는 것'과 '감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고 봉사로 언제나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언행 앞에서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도록 도와주십시오.

3. 주님의 일을 하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 저부터 회개하지 않았고 저부터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미워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따듯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현재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자기 계발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첫째 자리에 두고, 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비었던 공간을 다시 채우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세상 어떤 포도주보다도 향기롭고 기쁨으로 취하게 하는 주님의 포도주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교의 형성 과정)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지난 달부터 청년성서모임 연수 준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함께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어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을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할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그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삶을 나누는 데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느님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교의(dogma) 신학을 연구하고 글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신앙에 대한 교의와 신학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교의는 종교에서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교리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교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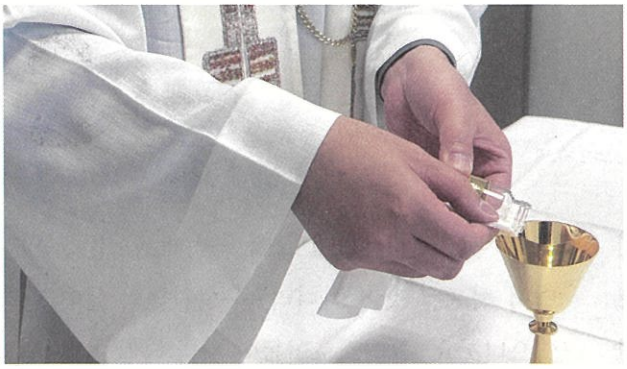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교의는 위에서 아래로 선포되는 것이며 신자들은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신앙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초대 교회 교부들의 삶을 바라보면 교의를 선포한 최초의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의가 먼저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나간 올바른 삶은 그 자체로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도 그들의 모범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보편적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출발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에서 '듣는 교회'(ecclesia audiens)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부터 믿음의 내용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성서모임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보며 오랜 기간 형성된 전통과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방식을 선택해 살다 보니 교회의 규정과 법도를 알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나누며 서로에게 귀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하던 방식'(lex vivendi)이 그들의 '믿는 방식'(lex credendi)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교회의 전승은 삶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빛을 발휘하며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오늘날의 교의신학은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상욱 가브리엘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미사 때 왜 포도주에 물을 섞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표징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는 이 표징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를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하느님 나라 혼인 잔치의 실현을 나타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35항)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물과 포도주는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의 중요한 상징으로 지금까지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찬 전례의 예물 준비 기도에서 사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따르면서', 속으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좀 더 라틴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과 포도주의 신비로운 표징으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에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 본성에
기꺼이 참여하셨나이다."

이 경문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의 한 단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주저 《신학대전》 III부 74문에서 성체성사의 재료들에 관하여 논하며, 제6항에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9,5)고 하였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목요일에 사도들과 마지막 파스카 축제 만찬을 나누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유다인들의 관습대로 포도주 잔에 물을 섞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합니다.

셋째로, 물은 그리스도교 백성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작 안에서 물이 포도주와 섞이는 것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뜻합니다.

넷째로, 성체성사의 궁극적인 효과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출기 17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위를 건드리자 물이 터져나와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성작 속으로 떨어진 물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샘솟는다."는 암브로시오 교부의 말씀을 인용하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제가 성작에 물을 넣는 것을 사막에서 모세가 바위를 건드려 물을 터뜨린 탈출기의 장면과 연관시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풍부한 상징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에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따라가며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갓생'을 살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갓생'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신조어로,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생산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대표하는 단어라는 거죠. 물론, '계획적인 삶에서 계획만 남은 삶'이라거나 '신 같은 삶을 살려다 (과로사해) 신과 마주할 삶'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자기 계발이나 재테크, 주기적인 운동 등 갓생을 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갓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미 갓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릴 줄은 모르고 다른 조건들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참 훌륭하다 싶었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사는 '갓생'을 살고 있죠.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라도, 그 삶은 여전히 갓생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시지도, 버리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학교에서 부제반 수업을 할 때 '존재감' 이야기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존재감은 어디에서 나오죠?" 대답이 없길래, 힌트를 줬죠. "질문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존재감은 존재에서 우러납니다. 능력이나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감을 나의 존재가 아닌 다른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능력을 더 키워야, 가진 것을 더 늘려야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존재감이 없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갓생을 살고 있는 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존재감보다 더 큰 존재감이 있을까요?

꽃은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모습대로 자기 존재를 피워낼 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이가 아름답다고 알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행해야 하는 거창한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갓생을 살면서 더 활짝 피어나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갓생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마태 6,28-29)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월 18일(토)~25일(토)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미사 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희년(2024년 12월 24일~2026년 1월 6일)을 맞아, 우리 교구의 정기 희년 전대사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2025년 정기 희년 기간 중 2024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28일에

기본 요건

㉮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미사 영성체를 하고,
㉰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매일미사 첫 페이지 교황님의 기도 지향 참조)

기본 요건과 더불어

㉱ 아래의 희년 전대사 수여 순례지 중 한 곳 이상 방문하여
(1) (긴) 순례의 경우:
미사 또는 말씀의 전례 또는 시간 전례(성무일도 독서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중 하나), 또는 십자가의 길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2)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비교적 짧은) 방문일 경우:
㉮ 성체조배와 묵상기도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며,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첨부된 교황청 내사원의 '전대사 수여 교령'의 〔III. 자비와 참회의 활동〕을 실천할 때에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②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③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교황님의 뜻과 부합하여 열리는, '대중 선교 활동'이나 영성 수련 혹은 공의회 문헌이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강좌에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도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교황청 내사원, 2025년 희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참조)

***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수여 지정 순례지**

주교좌 명동대성당 · 용산 성직자 묘역 ·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 천주교 서울순례길 안에 있는 순례지**

1코스 <말씀의 길> : 명동대성당 · 김범우의 집 터 · 한국 천주교회 창립 터 · 좌포도청 터 · 종로성당 · 광희문 성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석정보름우물
2코스 <생명의 길> : 가회동성당 · 광화문 124위 시복 터 · 형조 터 · 의금부 터 · 전옥서 터 · 우포도청 터 · 경기감영 터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3코스 <일치의 길> : 중림동 약현성당 · 당고개 순교성지 · 새남터 순교성지 · 절두산 순교성지 · 노고산 성지 · 용산예수성심신학교 · 왜고개 성지 · 삼성산 성지

※ 순례 코스 중 순례지 한 곳 이상 방문하여 대사의 기본 조건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특히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들, 그뿐 아니라 노인들, 병자들, 수감자들,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의 돌봄 시설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이들)은, 그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매어 두는 어느 곳에서든(예를 들어, 봉쇄 수도원, 병원, 요양원, 감옥의 경당), (특히 교황 성하나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때에)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동일한 조건 아래, 희년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1월 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2세)
- 2009년 1월 23일 홍인수 세례자요한 신부(67세)

교구청 알림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이스라엘 8일 피정: 11월 12일~21일(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3)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중인 신자
문의(접수):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총무

청년 환경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2월 1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3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시복시성 기원미사(206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김사범' / 문의: 02)2269-0413
때, 곳: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3월 24일~4월 4일(11박 12일) / 지도: 김상우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레사

민족화해위원회

1) 청년평화감수성피정 모집 안내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청년(만20세~39세 미만) 30명
내용: 환대, 평화감수성교육 / 회비: 5만원
때: 2월 15일(토) 13시~16일(주일) 14시(1박 2일)
곳: 샬트르수도회 성바오로 피정의집(경기 시흥)
문의(신청): 010-4682-2412 (문자신청-참가안내폼 발송)
2) 145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 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함흥교구 계림 본당
문의: 02)727-2420
1월 28일(화)은 설연휴로 인해 화해미사가 없습니다
3)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문의: 02)727-2415
때, 곳: 1월 24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1월 21일(화) 13시30분~16시30분,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5년 사순·부활 전례음악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
때: 2월 22일(토) 10시~17시30분, 최양업홀(중림동)
등록: 1월 13일(월)~24일(금)까지 / 문의: 02)393-2213~5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게시판 참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 / 전화(상담): 02)727-2137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형규 개인전: 1전시실
심순화 개인전: 2전시실
박재승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월 17일(금)~26일(일)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3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28-0023
때, 곳: 1월 21일(화) 13시~16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상기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때, 곳: 4월 24일~5월 5일, 성모발현지
회비: 520만원 / 문의: 010-7374-3217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성시간, 연도, 위령미사 / 강사: 김종국 신부
때: 매주(화) 12시~16시 / 담당: 김종국 신부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10-5514-4077 회장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2월 28일(금)~3월 2일(주일), 4월 4일(금)~6일(주일) 2박3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담당자

성모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월 20일(월) 13시~16시 / 미사, 강의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최황진 신부(수원교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1월 21일(화)	김현우 신부	2월 18일(화)	민동규 신부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2월 28일~3월 2일, 3월 21일~23일
사순 1일 피정	3월 6일, 3월 7일, 3월 13일, 3월 14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3월 18일~27일

가정선교회 2월 피정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1층·3층 강당
강사 등 자세한 내용은 '가정선교회'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2월 1일(토)
성가정 영성 피정	2월 12일(수)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2월 15일(토)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2월 14일(금)~16일(주일)	김선태 주교(전주교구)
3월 14일(금)~16일(주일)	서상범 주교(군종교구)
4월 17일(목)~20일(주일)	성주간 피정(기도학교)
5월 16일(금)~18일(주일)	전헌호 신부(대구교구)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말씀·치유·축복기도: 이상기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2월 7일~10일·2월 21일~24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2025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살레시오회)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미혼 남성
때, 곳: 2월 7일~9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1월 31일까지 접수 / 문의: 010-6221-3520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 번 기도회
때: 1월 20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1월 28일(화)은 설날 연휴로 철야기도회 쉽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포함** 2월 7일~9일·2월 21일~23일·2월 25일~27일, 3월 1일~3일·3월 8일~10일·3월 13일~16일(추자도)·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추)·3월 29일~31일·4월 1일~3일·4월 5일~8일(추)·4월 10일~12일·4월 14일~16일·4월 21일~23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한라산 포함** 2월 8일~10일·2월 14일~16일·2월 22일~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 1일~4일·3월 9일~12일·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3월 22일~24일·3월 28일~30일, 4월 2일~4일(추)·4월 7일~9일·4월 22일~24일·5월 10일~12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성물·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와 전례를 위한 오르간 교육(14동작지구 오르간 교육)
곳: 흑석동성당 / 문의: 010-4964-527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일일 연수
때, 곳: 2월 1일(토)·3일(월), 노틀담교육관(서울)
문의: 010-3829-7667 교리교재 연구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2월 5일~19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151기 1단계 개강
때: 3월 10일(월) 10시·3월 19일(수) 19시
곳: 가톨릭회관 527호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6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ECYD 청소년 리더쉽 양성 프로그램(그리스도 레지오회)
대상: 초5~6학년 남학생 / 문의: 010-6865-3765
때: 2월~5월 격주(토) 총8회
카카오톡 채널: 그리스도레지오회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2월 6일까지 접수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
때: 2월 11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온라인 Zoom / 문의: 02)333-9898 한국CLC

이콘연구소 23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만 65세 미만
실기시험: 2월 22일(토)·2월 24일(월) 10시30분
개강: 3월 4일(화) / 지도: 장긍선 신부
곳: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월 14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예수회 수도생활체험학교-나이 듦,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려는 프로그램 / 문의: 010-7451-9707
대상: 60세 이상 / 회비: 100만원
때, 곳: 3월 17일~26일·4월 21일~30일·5월 12일·21일·6월 9일~18일(10일), 강원도 홍천

CaFF영화제작워크숍 수강생 모집·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2) 1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월 22일(수)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지난 학기)
각 6~12주 과정 /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 발송
더 많은 강의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죽음 수업	홍기령 교수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번째 길-가치와 욕구	최지원 수녀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박상훈 신부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시몬 베유	김민철 신부

2025년 예수회 청년 마지스서클 3기 모집
이냐시오 영성 배움터, 여름 제주 마지스 대회
대상: 33세 이하 청년 / **인스타그램:** @magis_kr
때: 일정 2월~7월 월 1회 배움터·**첫모임** 2월 22일(토) 14시·**제주 마지스 대회** 8월 5일~12일(3일간 파견 체험 포함) / 신청링크 통해 접수(면접 선발)
문의: 02)3276-7706, 010-9797-2331(magis.kr@gmail.com) 예수회 청년센터 / **회비:** 50만원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모집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청회' 검색 후 문의 또는 전화·문자(010-3098-2192) 문의

무반주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라서울합창단 단원 모집 / **문의:** 010-9464-0680 단장
대상: 세례받은 만 55세 이하 남성(테너, 베이스)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명동성당 또는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시스띠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 / **문의:** 010-7257-4255
라틴어미사곡·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 있으신 55세 이상 전공자, 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곳: 신촌 / 구노의 미사곡 연주 예정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연탄나눔, 환경캠페인, 사회복지시설방문, 농촌체험, 해외봉사 등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초6~고3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www.stvin.or.kr)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월 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월 23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김수환 추기경 선종 16주년 추모미사
집전: 구요비 주교 / **문의:** 02)727-2508 (재)바보의나눔
때, 곳: 2월 16일(주일) 12시, 명동대성당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가톨릭여성연합회 제59차 정기총회 / **문의:** 02)778-7543
때, 곳: 1월 21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미사:** 김연범 신부(사목국장)

'나'를 찾아가는 내면아이 마음여행(집단상담)
때: 2월 15일(토) 10시~18시·2월 16일(주일) 10시~16시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j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익산 성클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oe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상담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청소년활동 지도(활동운영팀)
2월 16일(주일)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CPBC가톨릭평화방송 경력직 모집
기쁜소식, 밝은세상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미디어 사도를 찾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사지원 페이지(cpbc.c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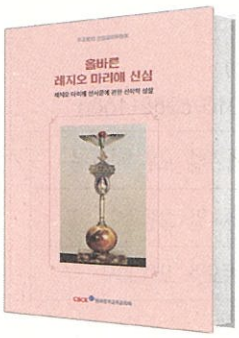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종로구)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2월 2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마케터	도서 및 콘텐츠 기획·마케팅
편집국	북디자인 및 기타 편집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월 26일(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월 24일(금)·25일(토)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올바른 레지오 마리애 신심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56쪽 | 5천원
문의: 02)460-75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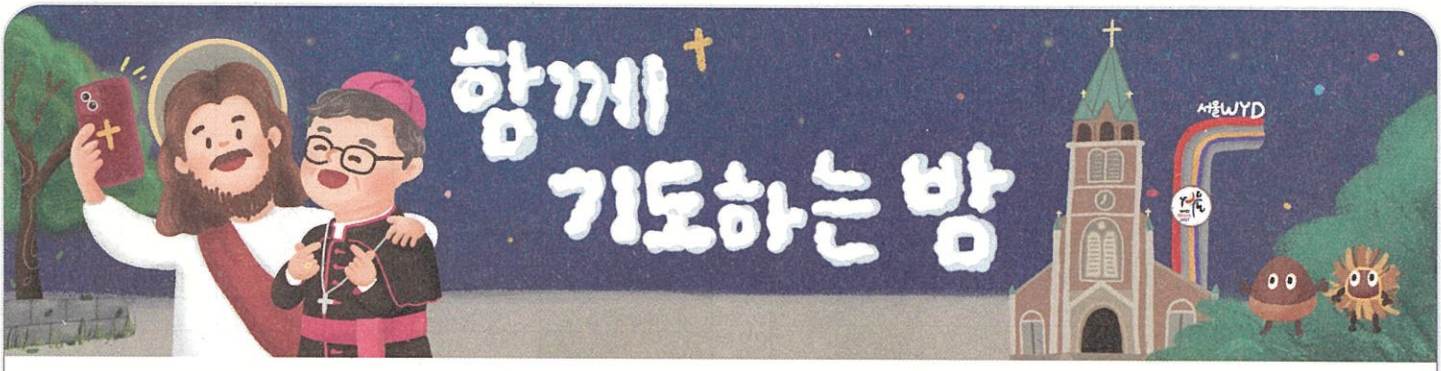
이 책은 레지오 마리애의 입단 선서문 내용 중 일부에 신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배경과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 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신학적 과제와 전망을 설명한다. 마리아 공경이 두드러지는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올바른 마리아 신학과 건강한 마리아 신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사순, 희망의 시간

몽포르 드 라수스 생저니에스 지음
바오로딸 | 176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2025년 희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사순 묵상서로 먼저 사순 시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날마다의 기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바친 후 단식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끌어 준다. 개인뿐 아니라 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참여 장려 이벤트

함께 기도하는 밤

교구장님과, 나의 짝꿍과,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함께 기도하는 밤'**을 보내며 그 순간을 기록하고 나누어주세요! 매월 당첨되신 분께는 보내주신 인증샷을 **귀엽고 멋진 일러스트 엽서로 제작**해 드립니다.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매월 첫 목요일 19:40~20:30
주교좌 명동대성당

['함께 기도하는 밤' 이벤트 안내]

성체조배	이벤트 응모 기간	성체조배	이벤트 응모 기간
2월 6일	~2월 13일까지	7월 3일	~7월 10일까지
3월 6일	~3월 13일까지	8월 7일	~8월 14일까지
4월 3일	~4월 10일까지	9월 4일	~9월 11일까지
5월 1일	~5월 8일까지	10월 2일	~10월 9일까지
6월 5일	~6월 12일까지	-	

❶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 나의 짝꿍을 초대해 함께 참여하기! 짝꿍은 친구·연인·가족 모두 가능, 총 4명까지 함께할 수 있어요.(나까지 포함)

❷ 짝꿍과 함께 명동대성당을 배경으로 인증샷 촬영하기.
인증샷에 얼굴과 옷차림이 잘 나와야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❸ 인증샷과 느낀 점을 작성해 두 번째 목요일까지 이메일(thursnight@catholic.kr)로 보내주세요.

❹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추첨하여,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시 상]

함께상 (최대 3인) | 인증샷 일러스트 엽서 10매,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 2권
*일러스트를 이미지 파일로도 제공해 드려요.
배경화면 ·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해 보세요!

기도상 (최대 7인) |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가톨릭출판사, 이영제 신부 지음) 2권

※ 저자의 친필사인이 담긴 도서 증정! 짝꿍과 나눠 읽어보세요. **본 이벤트는 2025년 2월~10월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참여 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일러스트는 이벤트 홍보를 위해 서울대교구 소셜미디어에 게재됩니다.
※ 성체조배 중에는 사진 촬영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8(평일 14시~17시) 또는 이메일(thursnight@catholic.kr)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1월 28일(화)	오전 6시 (평일미사)
1월 29일(수)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1월 30일(목)	미사 없습니다.

※ 설날 합동위령미사 신청 : 1월 25일(토)까지
※ 설날 당일 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 후 연도)
오전 9시, 11시미사 (미사 전 연도)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주일)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교중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9,000원	4,0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6일(주일)

◉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월 25일(토) 오후 3시 ~ 26일(주일)
가격 : 떡국떡(1.5kg) 10,000원/만두(김치, 고기) 13,000원

◉ 2024년 결산보고서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6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 1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7	223 (11.1%)	137 (6.8%)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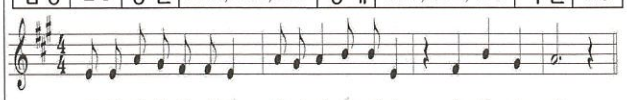
◉ 감사헌금 (1월 6일~12일)

곽선모 ……일만원 김진웅 ……오만원
유한승 ……이만원 오영순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장철호 ……일십만원
김옥녀 ……오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서울맨발재속가르멜회성알베르토공동체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세례 축일)

교 무 금……12,297,000원
주일헌금……5,235,500원

입당	24	봉헌	211,219,210	성체	164,502,499	파견	26



모든민족들에게 주님의기적을 전하여라

◉ 2024년 수지보고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교무금	580,283	제전비	19,979
주일헌금	326,537	전교비	25,131
감사헌금	115,877	단체보조비	125,977
기타헌금	11,676	주일학교운영비	59,388
성소후원금	6,027	교구납부금	163,530
사회복지후원금	26,973	특별헌금	24,573
성무지원금	63,700	사제관운영비	24,500
특별헌금	24,573	사제성무활동비	21,600
시설헌금	-	수녀성무활동비 등	12,750
기타기부금	3,068	사제특별지원비	28,027
혼배· 장례	-	성무지원비	63,700
이자수입	25,898	사제교육비	9,527
기타후원금	3,418	신자피정교육비	320
부속단체수입	20,443	자선찬조비	68,700
성물판매	11,022	교구및본당행사비	29,138
		기타행사비	652
		급여	186,268
		수당	44,523
		사무용품비	1,074
		도서인쇄비	1,532
		소모품비	6,317
		수도광열비	71,017
		수선비	6,200
		차량비	1,749
		임차료	6,087
		용역비	13,719
		통신비	5,141
		복리후생비	15,950
		시설비	30,675
		잡지출	406
		기타	4,556
기타수입	5,238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1,753
수입합계	**1,224,732**	**지출합계**	**1,094,460**
전월이월(현금)	8,085	현금	2,155
전월이월(예금)	368,689	가용 예금	391,487
비품처분	-	비품구입	12,777
퇴직급여충당금	136,913	퇴직급여충당금	115,159
건물감가적립금	474,695	건물감가적립금	574,731
기타예금	118,763	기타예금	141,107
지출초과	-	차기이월	13,272
합계	**2,331,876**	**합계**	**2,331,876**

■ 기타예금 내역 - 차량운영비 4,194,000원
- 퇴직연금 136,913,000원